

나주, '일자리 창출·투자유치 1번지' 맞춤행정 입증

전남도 일자리·경제 한마당서 2개 부문 대상 수상

31개 기업과 투자협약…“투자환경 조성 역량 집중”

나주시가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전남도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2개 부문에서 각각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 종합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시책 추진 성과와 투자유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도내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가로 꼽힌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나주시는 에너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부터 성장 단계 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나주 이노폴리스 캠퍼스’ 운영이 우수 시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에너지 산업 분야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해 교육, 기술사업화, 투자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에너지 수도 나주의 산업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해왔다.

또 전남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나주전력기술교육원은 일자리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교육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력설비, 전력IT, 전기소방 3개 학과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하이테크 과정과 신중년 특화, 여성 재취업 과정, 재직자 향상훈련 등을 통해 에너지 산업 분야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청년과 신중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올해 총 452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에 따라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1.6%에서 0.7%로 감소했으며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400명이 늘어난 6만8000명을 기록했다.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나주시는 올해 31개 기업과 총 437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497명의 고용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협약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정취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등 시후관리 중심의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한 점이 주효했다.



나주시가 최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전남도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2개 부문에서 각각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적인 일자리 정책과 기업 유치 이후까지 책임지는 투자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며 “에너지 국가산단 조기 착공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설립 등 첨단 과학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

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환경 조성에 모든편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진도군은 최근 세계적인 관광기업 ‘클러스터 트래블테크놀러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 ‘케이-먹거리 산업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진도, 세계적 관광기업 ‘클러스터 트래블테크놀러지’와 동행

‘진도잇츠 편리미엄 간편식’ 해외소비자 공략

진도군이 지역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세계적인 관광기업 ‘클러스터 트래블테크놀러지’와 손을 잡았다.

30일 군에 따르면 최근 ‘클러스터 트래블테크놀러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 ‘케이-먹거리 산업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협약을 통해 진도 농수산물 인증 상표인 ‘진도잇츠(Jindo Eats)’에서 출시한 ‘편리미엄(편리함+편리미엄) 밀키트’를 구독형 상품으로 선보이는 한편, 서울과 진도를 왕복하는 고속버스와 고속철도(KTX)를 연계해 해외관광객의 진도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구독형 상품은 ‘클러스터’를 통해 ‘진도잇츠’에서 출시한 간편식

(밀키트)을 정기적으로 구매해 해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국을 여행 중이거나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이 간편하게 진도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진도잇츠’의 ‘편리미엄 밀키트’에는 진도 특산물을 활용한 전복죽과 미역국, 간장게장, 전복장, 막걸리, 쌀, 곱창김 등 진도의 대표 먹거리가 포함돼 있으며, 조리가 간편하면서도 원재료의 품질과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

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며, 농수산물 판매 확대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세계적인 여행, 관광 기업인 ‘클러스터’와 손잡고 진도의 먹거리와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끝길은 출발을 하게 됐다”며 “지역에서 정성껏 키운 농수산물을 이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군민의 땀과 노력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마음 전하는 고풍몰’ 농수산 선물세트 한자리

내달 4일까지 최고 30% 할인

온라인 농수축특산물 쇼핑몰 ‘고흥몰’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달 4일까지 ‘고마운 사람, 고풍으로 쟁기세요. 연말연시 선물 배스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 인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고풍 대표 농수산물 선물세트를 한자리에 모아 준비했다. 행사 기간 동안 일부 선물세트는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기획전에서는 고풍 유자 가공품, 제철 과일, 수산물 선물세트, 건어물·가공식품 등 명절과 연말 선물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인기 품목들을 중심으로 실속형부터 프리미엄 구성까지 꼭넓게 마련했다.

고흥몰 관계자는 “연말연시는 감사와 인사를 전하는 선물 수요가 가장 집중되

화순, 노후 농업용 저수지 3개소 정비한다

재해위험 해소·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영농환경 개선

화순군은 재해 예방과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총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노후 농업용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동북면 가수저수지, 동면 신원저수지, 사령면 야동저수지 등 3개소다. 해당 저수지들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로 헝수 대응 능력이 부족해 D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동북면 가수저수지(1998년 축조)는 2026년 수리시설 정비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돼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제방 유고와 확보와 취수시설 보강 등 전반적인 시설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면 신원저수지(1968년 축조)와 사령면 야동저수지(1970년 축조)는

2026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신규 대상으로 선정돼 총 3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두 저수지 역시 제방 보강과 취수시설 개선 등 안정성 강화를 중심으로 정비가 추진된다.

군은 사업 선정을 위해 전남도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사업 추진 경과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3개 저수지 모두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각 사업은 2026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에 착공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수지의 헝수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페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71억원 규모로 소리내 죽림리 ‘관기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순천·여수·광양지사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16일 사업을 착공했다. 현재 공정률은 88%다.

지난 9월 5일 열린 간부 현장설명회에서는 생태공원 조성 이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여전협협 죽림호수저수지 부지 내 공중화장실 신축과 주차장 이용방안이 제안됐으며, 여전농협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화장실 신축과 주차장 이용 제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

비 전액 34억원을 2026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야간 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 2.0km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입도로에는 기존 전주를 활용한 보안등 설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생태공원 구역 내 주요 동선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공원등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용자 안전과 편의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그늘 쉼터와 휴식공간 등 추가 편의시설도 공원 이용 동선을 고려해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기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페직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에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여수 관기 저수지 전경